

기획대담

개혁기 중국의 사회와 노동: 장영석 교수와의 대담

일시: 2015년 10월29일(목) 오후 4-6시

장소: 성공회대학교 장영석 교수 연구실

참가자: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철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현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전 한국현대중국학회 회장. 장영석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월간 말지 기자와 석탑노동연구원 연구원을 거쳐서, 1995년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유학하여 200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교수는 노동을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체제전환, 산업발전,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진핑 정부 시기 사회관리체제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강독을 위한 중국어 문법』(2015), 『중국사회문화의 원형』(2011), 『지구화시대 중국의 노동관계』(2007), 『고뇌하는 중국』(2006), 『중국의 노사관계와 현지경영』(2003),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2003), 『WTO로 가는 중국』(2002) 등이 있다.

박철현 HK연구교수(이하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초 저희 연구소에서 기획대담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신 서진영 선생님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중국 정치 연구 1세대가 아니시나?’라고 했더니 물론 정치 쪽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도 이제 전후(해방 이후)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를 보더라도 조금 앞 세대, 민두기 선생 세대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중국 대륙으로 유학을 갔고 사회학으로는 처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장영석 교수(이하 장): 안병준, 김달중, 서진영, 최명 선생님 등 한국에서 중국 연구를 개척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세대 이후 상당히 재미있는 분이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백영서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중국 연구가 기피되던 유신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중국 연구를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백 선생님이 화교를 통해서 중국어를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분들 상당수는 대만으로 유학을 갔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중국을 가서 92년도에 수교하고 바로 갔던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수교 이후 초창기 멤버로 중국에서 공부를 한 경우입니다.

박: 그런 의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 시스템에서 배운 첫 세대이니까요. 이 세대는 한국에서 70~80년대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 90년대 초반이면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초중반 학번들, 중국 및 소련과 수교를 한 이후에 그쪽으로 유학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고 실제로 봤습니다. 이전의 서진영 선생님, 민두기 선생님, 백영서 선생님과과는 다른 경험과 시각, 가실 때의 마음가짐이 있지 않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월간 말지와 내일신문 기사를 하신 후 중국 유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 중국유학 1세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계에서 종사하시다 중국 유학을 결정하신 계기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사회과학을 하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서 유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당시 수교한지도 얼마 안 된 중국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결정하신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장: 중국에 대한 관심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영희 선생의 글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은 뜻밖의 기회가 저한테 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93년 제가 몸을 담고 있던 석탑노동연구원에서는 노동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신문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신문이 바로 내일신문입니다. 제가 내일신문 창간을 준비하고 있던 93년 4월경 노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일본을 다녀오는 산업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노동부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한국의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든 돌려보고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회사 간부와 노동조합 간부 약 40명으로 구성되었던 1기가 동구권을 갔다가 서구권의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구 소련 시스템 하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들과 자본주의체제의 서유럽 국가를 비교·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산업 시찰의 결과가 이상적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중국을 방문했다가 일본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갖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전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낙후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1기는 순전히 회사 간부와 노동조합 간부만으로 구성되었는데, 2기에는 사회단체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단체에서는 저까지 포함하여 두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선양의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그렇다면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선양을 가신 겁니까?

장: 네.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 중국 측에서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 시찰단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중국 측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상하이의 모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접대해준 공장에서 간부들이 나왔는데 그 기업의 당 서기, 총경리, 공회(工會) 주석이었습니다. 공회 주석은 이 공장의 부사장급이라는 말을 들었고, 국유기업에서 공회 주석은 대부분 다 부사장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개에서부터 나는 중국의 공장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박: 자본주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요?

장: 그렇죠. 중국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방문지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박: 혹시 방문하셨던 상하이 공장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이 남아있긴 한데….

박: 93년이면 상하이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막 시작됐을 무렵일 것 같거든요, 제 추정상으로는. 그래서 흔히 중국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삼회(老三會) 있지 않습니까? 직공 대표대회, 공회, 당 조직. 노삼회가 신삼회(新三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나요?

장: 93년도는 그렇게 국유기업의 개혁이 진척되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구삼회와 신삼회 논쟁은 90년대 중후반기에 본격화 되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93년의 경우 상하이 시내에서는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푸둥도 거의 허허벌판에서 개발을 위한 기초 공사가 진척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하이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지 설명을 들었어도 그 맥락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의문만 더 키워가지고 산업 시찰을 마쳤던 것 같아요. 도쿄 일정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시간을 내서 서점에 갔어요. 중국과 관련된 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 책이 『붉은 자본주의의 중국(赤い資本主義・中國)』입니다. 93년 6월에 나온 책인데 내가 93년 7월에 샀으니 아주 딱딱딱한 정보를 담고 있었지요. 이 책은 일본의 산업시찰단이 91-93년 3년에 걸쳐서 중국을 조사하고 보고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91년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방됐다는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선전으로 들어가서 광둥 지역을 시찰한 뒤 1차 보고서가 나온 거죠. 2차 보고서는 동북 지역의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3차 년도에는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양쯔강을 따라서 중국의 중부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산업을 시찰

했습니다. 이 책은 3년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중국 연해지역은 덩샤오핑, 자오즈양이 개혁개방 전략 하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3년 7월 제가 보았던 상하이, 베이징, 선양을 이 책을 통해 추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형이었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상황과 미래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결국은 중국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 유학 전 중국 연구자 몇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중 한 분이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희옥 박사였습니다. 당시 이희옥 박사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한국의 중국학 연구자 가운데 사회학자가 많고, 또 제가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했으니 사회학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박: 당시에 이희옥 교수님은 중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나요?

장: 그렇죠. 연구원으로 있을 때죠. 연령대로 보면 이희옥 선생은 저와 동년배이지만, 학부 때부터 중국을 줄곧 공부해왔던 분이고, 저는 말지, 석탑노동연구원, 내일신문을 거쳐서 공부에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인데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늦깎이였던 셈이지요. 결국 제가 중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93년 중국 산업 시찰을 통해 많은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동구권은 몰락하고, 중국은 중국식의 개혁을 하고 있는데, 개혁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이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소동구권 몰락 이후에 저의 주변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저는 중국 유학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식의 개혁이 한국과 접점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대학원에 설립되어 있는 언어센터에서 먼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후 북경대학 사회학과 주임 선생님을 만났더니 사회학과는 대외개방이 안 되어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외국 학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학교 당국에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10월이 되어서야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 1월 석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박: 입학을 1월에 하신 겁니까?

장: 시험이 1월 달이었고, 학기는 9월에 시작되었죠.

박: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최초로 입학한 외국인인가요?

장: 그렇죠. 북경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입학시험과 관련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북경대학교 사회학과에는 외국인 입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선배들을 통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 베이징 소재 대학에 80년대 학번들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있었고, ‘21세기 중국연구회’라는 학생모임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학을

하실 무렵 유학 생활은 어떠했고, 어떤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저는 94년 3월 3일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적성 국가’로 분류되었던 국가였어요. 중국 입국 시에는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관계 당국의 면접을 보았어요. 그런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 그렇다면 당시에는 중국과 수교를 했더라도 중국이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중국 입국 시에는 무슨 허가증이 있어야 했던 것인가요?

장: 중국에 입국하려던 모든 사람들을 면접 보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저의 경우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95년 9월 대학원에 입학해 보니 저보다 일찍 북경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분들은 각각 다른 계기로 오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중국 전문가로 이름이 나있던 분들도 계셨고, 저처럼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죠. 대학원 입학 후 매년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던 거죠. 이들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10여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학술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21세기 중국연구회’라는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주로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국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깊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의 영향도 있고 중국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위안, 100위안 정도씩 각출하면 전문가 선생님께 거마비를 드리고 모임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때 중국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박: 그때 인민폐 1위안 당 100원도 안 되던 시절 아니었나요?

장: 달러를 교환해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달러를 가지고 인민폐로 교환을 할 때였어요. 우선 1달러 당 800원 정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달러로 12위안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1달러에 1200원 정도 하는데다가 1달러를 들고 가면 6위안 약간 더 교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의 환차는 약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다가 당시의 중국 물가는 상당히 싸았죠.

박: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중국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 제가 95년 대학원에 입학해서 보니 석사 동기생은 저를 포함해서 13명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중국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80년도부터 개혁을 하다가 천안문사건 이후에 개혁이 중단이 되잖아요. 대조정의 기간을 거치고. 92년도에 주룽지 시절이 되고난 후에, 주룽지 총리 시절에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였던 것이 국유기업 개혁이에요. 제가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던 95년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문제가 핫이슈로 올라올 때였습니다. 국유기업 개혁을 잘 돌파해야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성공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국유기업 개혁 방향의 문제는 국유기업에 몸을 담고 있던 직원들, 노동자의 이해 문제까지 관계된 문제입니다.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노동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임금제도 개혁도, 90년대 노동계약제도 전면화 문제도 모두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니까요. 노동 유연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보장체제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사회보장체제는 국유기업체제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유기업 개혁 문제를 연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문제로 가게 됐던 거죠.

두 번째는 한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노동문제가 중국의 노동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의 개혁이 노동제도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기 국유기업 개혁은 소유권 구조개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중국인 학자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신자유주의 모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국유기업 소유권 구조 개혁에서 ‘노동자의 권리’, 즉 ‘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독일의 경험,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을 많이 참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실정에 맞는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을 주장했던 셈이지요. 그 분들은 국유기업의 자산에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던 것이지요. 저는 사회주의체제 하의 노동의 과정과 노동자의 생활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체제 하의 노동 과정과 노동자의 생활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 하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 그 사회주의체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과정과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은 한 분과학문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나 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으로 중국을 분석할 때 가지는 장점과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95년 북경대학 사회학과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서구에서 개발되었던 사회학의 방법론이 막 소개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중국적 특색, 본토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토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5년 당시 상당수 중국 사회학자는 본토적 방법론으로서 페이샤오통 선생의 학문적인 방법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샤오통 선생은 20년대 말 컬럼비아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개척했던 사회학적 방법론은 커뮤니티 연구 방법론입니다. 저는 그 방법론으로 중국 사회를 연구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중국 학자들의 본토화 노력은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서구의 이론을 중국에 적용이 할 때에는 대단히 한계가 많다고도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중국 사회의 다양성을 서구의 이론으로써 담아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시화 진척이 더딘 중

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고, 게다가 중국의 국가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점차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을 가지고 중국사회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국 사회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근대 국가에 기초한 사회학적 이론으로써 중국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대륙경제'를 가진 제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근대 민족국가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던 사회학적인 학문 방법론으로써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박: 루시앙 파이 인가요? 그는 중국은 민족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제국의 경험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지요. 다음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전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연구를 위해서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도 시간이 날 때는 중국노동의 현장, 특히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을 중시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노동자들과 만날 때 원칙이랄까요? 태도나 입장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002년에 톈진에 있는 한국-중국 합작 공장에서 5개월 정도 사무직으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제 보직 자체가 공장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어서 틈만 나면 공장 현장으로 가서 생산 관리자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때가 2002년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90년대 국유기업 개혁 1차가 끝났고 실제로 그 노동자들한테 국유기업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진행되었는가를 얘기들을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랄까요? 공장을 연구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장: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산업 현장을 봐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중국 국유기업의 노동현장을 조사했던 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였던 99년 전후였습니다. 그 후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계속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에는 정저우 소재의 제지 국유기업을 사례로 연구했습니다. 아주 갈등이 많았던 국유기업이었습니다. 사영화를 막기 위해 노동자가 공장을 점거하고 있었고,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시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사 소재의 한 공장도 조사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나는 공장으로서 창사에서 세 번째로 큰 국유기업이었습니다. 이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은 중간관리층 이상의 간부에게 기업 소유권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로는 중국 현지 조사연구의 초점은 연구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중국기업의 추격과 혁신 능력을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추격과 혁신 능력의 문제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다보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추격과 혁신 능력이 축적되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은 부족합니다.

박: 추격과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님이나 국민대학교 은종학 교수님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저는 추격과 혁신 능력의 구축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격과 혁신 능력의 구축 문제는 결국 암묵적 지식이 축적되는 방식의 문제이고, 이는 주로 노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추격과 혁신 능력의 구축 문제와 노동의 영역 사이에 설명되고 해결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학에서도 이 암묵적 지식이 축적되는 방식을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사회학, 경제사회학도 암묵적 지식의 축적과 전이, 확산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초 모 대학 웹진에 광둥성을 비롯한 몇몇 지방 정부가 실험중인 점수적립제도를 소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점수적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은 기존에 생득적으로 도시호구를 취득한 도시민과 점수적립제도를 통해 도시 호구를 취득한 농민공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는 새로운 방식의 중국 도시사회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형도시화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중국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광둥성 농민공 숫자는 2013년 약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 광둥성 본성의 농민공이 약 1028만 명, 그리고 다른 성에서 광둥성으로 온 농민공이 약 1700만 명으로 광둥성 본성의 농민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입니다. 이들 농민공들은 점수적립제를 통해 도시민의 대우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대단히 험난해 보입니다. 최근 광둥성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보면 기업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법 규정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점수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공들이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적립된 사회보험료가 지역 간에 이전되지 못하는 문제 등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허점이 많아 상당수의 농민공들이 사회보험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각 도시마다 도시민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적립제를 통한 농민공의 도시민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공이 제일 많고, 또 농민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광둥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특대도시의 경우는 호구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수적립제가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확대될 것이라거나 또는 점수적립제를 통해 농민공이 도시민의 대우를 받는 날이 빨리 올 것이라는 전망을 갖지 않습니다.

박: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일부 지방 정부가 점수적립제를 통한 도시 호구 취득이라는 제도를 확립했지만, 그 집행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건가요?

장: 저는 2015년 초 광저우를 방문하여 중산대학교 교수들을 만나 점수적립제 운영 상황에 대해 질문한 적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농민공의 경우 자녀가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대입 경쟁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대학은 각 성별로 일정한 비율의 학생만 선발합니다. 소위 지역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외부에서 온 농민공의 자녀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하

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적인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적립제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농민공이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박: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점수적립제를 통해 도시민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인 것이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과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장: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마도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광둥성의 몇몇 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전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이런 지역이나 동관 같은 곳에 가면 농민공들이 대단히 많죠. 그 지역의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매우기 힘든 격차가 있습니다. 원래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개발이 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상당수의 농민공들은 세입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박: 점수적립제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추진하는 하나의 실험이고, 중국의 각 도시마다 각각 다른 방식의 호구제도 개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살면서 통저우에 갈 일이 있었는데, 플래카드에 ‘우리 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베이징 도시호구를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 있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호구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 돈으로 도시 호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각 도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민공의 시민화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박: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호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 시민권의 형태는 ‘얼룩덜룩한(variegated)’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충칭시의 경우 광둥성과 비교하면 훨씬 더 농민들에게 우호적으로 방식으로 농민을 도시 시민으로 전환시키잖아요. 지표(地票)를 통해서 경제적 비용까지 시정부에서 마련해주고 하는 정도니까요.

장: 충칭시의 지표 방식은 토지를 내놓는 농민을 도시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도시의 호구를 획득하려는 농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농민이나 노동자나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토지를 내놓고 도시에 들어왔을 때의 삶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을 때의 삶보다 더 낫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토지를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충칭시의 농민의 시민화 실험도 상당히 제한적 실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구제도 개혁은 중국 사회가 풀어야 할 장기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박: 다음 질문은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중국 지역에 대한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지역학을 전공하면서 한 분과학문에 매몰된 사회과학적 방법론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을 연구하는 사회과학도는 그 지역을 연구하더라도 그 연구 성과를 좀 더 보편화시키기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연구하는 사회과학도는 해당 지역의 다면적, 복합적, 중층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사회학 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분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공간, 지리 등의 키워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중국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지요?

장: 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경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된 의미를 좀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이클 뷰러보이 같은 학자는 사례연구에 천착했던 학자입니다. 그가 직면하게 된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 전체를 파악하는 방법론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페이샤오통 선생에게서도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번역한 『중국 사회문화의 원형: 향토사회』에는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페이샤오통 선생의 팔순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페이샤오통 선생에게 던져진 그의 한 동학(同學)의 질문입니다. 그 동학은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떻게 중국 전체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페이샤오통 선생과 뷰러보이의 대답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즉, 사례연구 확장 방법을 통해 전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뷰러보이는 사례연구의 확장 방식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첫째, 영역의 확장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을 연구하더라도 그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을 생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뤼투는 ‘신공인’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냈는데, 모두 농민공의 노동과 생활의 영역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둘째, 사례를 시공간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적 확장은 역사적 접근법입니다. 페이샤오통 선생의 ‘강촌’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공간적 확장은 동일한 연구 주제를 다른 공간에서도 조사해 보고 다양한 사례의 유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페이샤오통 선생의 후기 저작 가운데에는 『가고 또 가고(重重行行)』이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미시적인 연구를 거시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확장입니다. 이는 뷰러보이도 자신의 연구에서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던 확장의 방법입니다. 노동의 과정이 거시사회의 영향을 받는데, 바로 그 점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마이클 뷰러보이가 자신의 3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회고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현상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넷째, 사례연구를 보편적 이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확장의 방법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중국적인 경험을 다른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어떤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90년대 초 구해근, 엘빈 소, 샤오신항 등은 ‘동아시아 중산 계급(East Asia Middle Class)’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경험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비교분석과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체제전환의 국가이고,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박: 2014년 선생님이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실 때 ‘중국예외주의는 예외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무슨 이유인지, 제목만큼 토론이 치열하거나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발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모델은 경제발전 방식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운영과 구성방식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되어 온 느낌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중국의 특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만, 일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중국 얘기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에게 저는 중국의 특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범박한 질문입니다만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른바 중국모델이 얼마나 보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는 중국의 노동과 중국 노동자의 경험이 전 세계 노동과 노동자의 경험과 관련해서 얼마나 특수할까요?

장: 그 주제를 꺼내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 중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국 모델론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학 연구자가 시의성 있는 주제를 택해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주제를 좀 더 깊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의 중심을 밑으로 한 번 더 낮추어보자는 의도에서 기획이 되었던 학술대회였습니다. 중국 모델론에 대해, 혹은 중국 연구에서 좀 더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기획했던 의도대로 학술대회가 잘 치러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는 제가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국의 예외주의는 예외적인가’라는 주제를 조금 비틀어 보면 ‘미국 예외주의는 예외적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한데, 지금 그 같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중국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종 보편주의적이지 않다는 분석과 해석이 따릅니다. 앞에서 중국 지역 연구 방법론을 말씀 드릴 때 중국은 체제 전환적인 요인과 제국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국가 단위에서 개발되었던 서구의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특수성과 예외주의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사상하고 갑자기 중국 모델을 이야기하면 결국 서구 학계에서 전개되었던 ‘중국 모델론’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중국 모델의 복제 가능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은 복제 불가능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국 지역학 학계에서 그 같은 논쟁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모델론은 정치적인 담론이지 학술적인 담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중국의 역사학, 경제사학, 과학기술사를 전공하신 분들의 글을 통해 현재의 중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웨이크만은 중국 제국의 붕괴 요인을 중국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찾았습니다. 마크 엘빈은 중화제국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이 서구 유럽보다 낮은 이유를 인구적 요인과 자원 제약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는 중국이 세계경제와 접목되는 것에서 찾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황런위는 중화 제국의 재정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연구 시좌가 현재의 중국을 분석할 때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소는 ‘중국의 지식, 지식인, 지형과 네트워크’라는 인문한국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를 마치고 현재 3단계 1년차에 들어갔는데요, 3단계 정식주제는 ‘지식연구에서 지역연구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해온 중국의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중국에 대한 지역연구로 전환시킬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지역연구와는 달리 지식과 지식인을 키워드로 하는 지역연구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체로서 지식과 지식인 그리고 이 지식과 지식인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지역연구로서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시진핑 시기의 사회관리정책과 기층사회의 대응’입니다. 올해 광둥 지역을 조사했고, 2016년에는 동북 지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둥 지역 현지 조사는 올해 1월, 7월에 수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금 부족한 내용이 발견되어 내년 1월에 보충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둥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광둥 지역의 지식인들을 만났습니다. 광둥 지역 지식인들은 베이징의 지식인들과 아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의 지식인들은 시좌가 상대적으로 전국을 향해 있다면, 광둥 지역 지식인들은 상대적으로 광둥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를 가지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지식인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한 특정 지역의 지식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시진핑 시대의 사회관리정책이잖아요. 광둥 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건설, 사회공작, 사회치리 등의 개념들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지고 실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광둥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개혁이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실험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빨리 나와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확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정부를 주목해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새로운 실험들에 대해 지방의 지식인들이 어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둥성이 노동의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노동자 간부의 사회화, 공회 간부의 직선제, 노동NGO 포섭 전략, 노동쟁의에 대한 ‘대조정’ 실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밖에 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규 제정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담론과 실천은 지역 내 여러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지식 형성과 지역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 사실 저도 지난여름에 연변대 사회학과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곳 선생님들과 얘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그 지역 학자들의 상당수는 민족 사회학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광둥 성 등 다른 지역의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의 형성의 공간적 특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장: 하나만 덧붙이자면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그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 말 상하이의 재취업복무센터 실험이 그런 예에 속하지요. 그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상하이의 경우 다른 지방 정부보다 재정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같은 실험을 할 수 있었지만, 노동 문제가 심각했던 동북 지역의 경우 그 같은 실험을 전개할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사례는 중국 지방의 지식 형성과 실천, 그 지식과 실천의 확산 과정에서 항상 지역적 편차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박: 기본적인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감사합니다.